



법무공단 광주전남지부, 중식 나눔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지부 식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가족지원위원회(회장 김석균)와 함께 ‘특별 중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영훈 지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석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의미가 컸다”며 “건강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KT-남광주시장상인회, 시장 활성화 맞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부는 남광주시장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KT는 남광주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방문 고객 확대를 도모하고 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KT는 남광주 전통시장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자사 IPTV 서비스인 지니 TV 우리동네(Ch.111)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지니 TV 우리동네’는 지니 TV 시청자에게 유용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장을 홍보하는 TV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다. 소비자는 해당 채널을 통해 시장 정보, 각 매장의 영업시간,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오 KT 광주지사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승기 남광주시장상인회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KT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광주 전통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빛고을50+센터, 초보식물 집사 과정 수료

광주시 장년층 생애 설계 지원기관인 빛고을 50+센터가 ‘초보식물 집사를 위한 플랜테리어’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3월24일~19일까지 장년층 시민 교육 참여 신청자 20명을 대상으로 8회 진행됐다.

교육용은 이주빈 전문 강사를 초빙해 △화훼학의 기원과 장식학 과정 △다양한 색감 수정도를 활용한 식물심기 △생화 활용한 꽃 상자 만들기 △테라리움 실습 △스트레스 관리와 자아 탐색으로 스칸디나비아 장식 △꽃 풍선·가랜드 만들기 △개별 연구 작품 발표·생애 8대 영역 진단 해석 등을 교육했다.

교육을 통해 장년층의 인식변화의 장을 마련하고 원에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자기 만족감 확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렸다.

50+센터 유영용 센터장은 “주입식 강의가 아닌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았다”며 “시절 여건상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아쉬웠고 올해를 기반으로 자연, 환경, 에너지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광주청년유니온·이소아 변호사 ‘들불상’ 수상

청년 노동 문제 해결 사회약자 인권 옹호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가 제20회 들불상 수상자로 광주청년유니온과 이소아 변호사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접수한 후보들 모두 업적이 훌륭했다. 불가피하게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단체 한 곳과 개인 한 명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 수상 단체인 광주청년유니온은 2012년 창립 이후 청년들의 단결을 통해 노동 문제, 실업 문제 등 청년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성폭력, 노예 노동 등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 해결과 청년 실업 및 심화되는 일자리 격차에 대한 대응, 노동 시장 진입 전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와 사회경제적 권익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됐다.

또한 기업과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청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점도 수상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소아 변호



이소아 변호사(왼쪽)와 청년유니온

사는 2015년 광주·전남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공익인권 전업 변호사 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설립해 지난 10년간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성매매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헌신해 왔다.

법정에서의 변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광주·전남 지역 최초 난민 인정, 이주배경 아동 출생 신고 및 체류 자격 대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제공

응, 전남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피해 대응 및 실태 조사, 농업업 계절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착취 피해 대응,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광주 금도고교 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관련 이동권 소송 일부 승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활동들이 이번 수상의 주요 근거가 됐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이번 수상자 발표를 통해 광주청년유니온과 이소아 변호사가 보여준 연대 활동이 들불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2025년 시대 정신에 부합하며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한국 노동 운동과 진보 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들불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신했던 들불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인권·평등·평화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일본의 노동 운동가인 야스다 마사시 씨가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제20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5·18 국립묘역 역사관에서 열린다. 이수민 기자

김태진 서구의원, 양동시장 활성화 ‘감사패’

시설 현대화 예산 확보 기여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이 최근 양동시장 정기총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 양동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노후된 시설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인 주차난 해소와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은 그동안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태진 의원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용목 양동시장상인회장은 “김태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에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진 의원은 “광주 최고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의 주차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조력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동시장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화순전남대병원-한미약품 공동연구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한미약품(주)과 손잡고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협력을 본격화하며 아시아 암 진료·연구 허브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화순전남대병원(이하 화순대)은 지난 15일 화순전남대병원 나눔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현장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목표지향적 공동연구 추진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 인적자원, 협력 네트워크 공동 활용 △빅데이터 기반 코호트 연구 공동 수행 등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협약 체결 후 ‘건강보험 빅데이터 소개

및 연구 진행 프로세스 안내’를 주제로 한 과제 설명회도 열렸다. 한미약품 데이터 전략그룹 김하성 그룹장이 발표를 맡아 연구자들에게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방안과 연구 절차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는 현장 의료진과 연구진의 높은 관심을 끌며, 빅데이터 기반 연구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민정준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방대한 임상데이터와 의료현장의 역량을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정밀 의료와 의료AI, 임상연구의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 아시아 암 치료의 중심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동신대, 법무부 공무원 채용설명회 성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 강의

동신대학교는 최근 교내 대정3관에서 경찰행정학과 1~4학년 재학생 53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의 전공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을 받아 마련됐으며,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실무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부 공무원의 개념 △부처 및 소속 기관 △주요 업무 △보조직 공무원 선발 절차 △최근 경쟁률 등 구체적인 정보가 소개됐다.

임두영 경찰행정학과 학생은 “그동안 경찰공무원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며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보람적 공무원의 역할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근 경찰행정학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직무에 대해 눈을 뜨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직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